

1998 치과계 전망

FDI 차기회장 추천 및 적극적 지지 필요



국제이사 조행작

제86차 FDI 총회에서는 다시 한번 FDI 차기회장을 추천하고 차기회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국 치협 및 FDI 임원에게 보내 명실상부한 국제치과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껏 노력을 경주...

1997년은 안팎으로 너무나 다사다난 하였던 한해였습니다. 국가경제파국 영향의 여파로 치과경영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끼쳐 회원들에게도 적지 않게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사정에도 불구하고 제85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 총회를 여러 회원들의 커다란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성공리에 마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크게는 각국 치과협회에 한국치의학계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 집니다.

지난 FDI 서울총회는 역대 대회중 가장 화려하고 빛나는 대회였습니다. 개막식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참가하여 각국 치과 관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덴탈코러스의 합창으로 한국 치과인의 예술성을 한껏 보여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될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FDI 회원국을 비롯하여 현재 준회원국으로도 가입치 못한 국가의 치과의사가 참여한 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제회의의 주최국으로의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적 이미지 부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 동안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 치과관련단체와의 유대를 더욱더 강화

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대처해 가는 모습을 세계 모든 치과의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또다른 국제치과회의를 열 수 있다는 확연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태국 방콕 제20차 아·태치과회의(APDC) 및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86차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총회에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국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자세를 보이고, 아·태치과의사연맹 워크샵에 구강보건 전담부서 주무인을 참여시켜 한국 구강보건활동 업무 방향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6차 FDI 총회에서는 다시 한번 FDI 차기회장을 추천하고 차기회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국 치협 및 FDI 임원에게 보내 명실상부한 국제치과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껏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